

원전 사용후 핵연료, 과세 법률안 처리 촉구

영광 등 광역·자치단체 10곳 지역자원시설세 공동 건의 전국 4개 지역 24기 발전소 강한 방사선 방출 안전 위협

전남도 등 원전 소재 전국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3일 사용후핵연료(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는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원전시설이 직접 소재한 영광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장은 이날 영광군청에서 전남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미리 서명한 이런 내용의 공동건의문에 현장 서명했다.

이들 지자체는 이날 영광군청에서 발표한 공동건의문에서 "사용후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지만, 별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발전시설 내부에 보관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관리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전 및 관련 연구원 소재 해당 10개 지자체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안전과 부담을 고려해 당연히 과세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의 필요성을 알리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영광을 비롯해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전국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지난 3일 영광군청에서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는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가운데)가 공동건의문을 들어보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 원전 지원금 지급에 따른 중부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강석호·이개호·유민봉 의원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역세 또는

정률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과세입법 건의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 통과 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핵발전소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내에는 4개 지역에 총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전남에는 영광 한빛원전에 6기가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경수로형 발전으로 사용된 6302개 연료봉 다발체를 보관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수산물 생산량, 전국의 56% 차지

지난해 전국 어가소득 사상 첫 5000만원 돌파

전국 해양수산의 메카인 전남지역 어가소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국 평균 어가소득 역시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돌파했다. 전남도가 실시한 2018년 고소득 어업인 조사에서는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어가가 2413곳으로 전체 어가의 13%에 달하는 등 어가의 소득이 계속 증가세에 있다. 귀어귀촌정책을 통해 도시민들의 여촌 진입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수산물 생산은 물론 가공·유통이나 관광 등 6차 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온 것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전국 어가 평균소득이 2013년부터 매년 증가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연도별 평균 어가 소득은 2013년 3859만원이었다가 2014년 4101만 원, 2015년 4389만원, 2016년 4708만원, 2017년 4902만원, 2018년 5184만 원이다. 다만 어가당 평균 자산은 4억3427만원으로 전년(4억3723만원)보다 0.7% 줄었다.

어가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종류별 비중은 어업소득이 49.5%, 제조업, 도소매업 등 어업외소득이 26.1%, 보조금,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19.7%, 비경상소득이 4.7% 순이었다. 어업형태별로는 양식어가의 어가소득이 7941만원으로, 어로어가의 4172만원에 비해 1.9배 높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양식어가는 2.5% 증가했고, 어로어가는 7.8%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경영주의 어가소득이 1억35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어가자산은 50대 경영주가 5억7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 어가소득을 전년과 비교하면 50대 이하는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지역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56%, 생산액의 38%를 차지해 전국 어가 평균 소득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고부가가치로 수산식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어업인 소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눈에 반한 쌀 등 전남 10대 브랜드쌀 선정

전남도는 해남 한눈에반한쌀, 담양 대숲맑은쌀 등을 '올해의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했다.

전남쌀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은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쌀 관련 5개 전문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했다.

시중 판매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 시료를 구입, 쌀 관련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해 품종 혼입률, 품질, 외관 품질, 식미평가, 중금속·잔류농약검사, 서류·현장평가 등 2개월에 걸쳐 심사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대상에 해남 한눈에반한쌀, 최우수상에 담양 대숲맑은쌀, 우수상에 영암 달마지쌀골드·함평 나비쌀·영광 사계절이사는집, 장려상에 보성 녹차미인쌀·순천 나누우라·강진 프리미엄호평·무안 황도량쌀·화순 자연속애순미쌀이 뽑혔다. 이들 브랜드쌀은 생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상품을 차별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품종 순도 100%가 9개 브랜드에



서 나타날 정도로 예년에 비해 품질이 향상됐다. 평가위원들은 "브랜드 쌀의 품질, 식미평가가 상당히 우수해졌다"고 분석했다.

전남도는 오는 6월 10대 브랜드쌀을 시상하고, 브랜드쌀의 판촉 및 품질 개선 등을 위해 홍보, 마케팅 사업비로 총 1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쌀의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은 물론 제주·영남권 등을 중심으로 우수 브랜드쌀을 집중 홍보하고, 대형 유통매장을 통한 공동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폐각 처리 26억 지원

전남도는 연안 오염 방지로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폐각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각 처리에 2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폐류 양식·가공 생산으로 인해 연간 5만2000t의 폐각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폐각 무단 투기와 방치에 따른 연안 환경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각 친환경처리사업비(국비 20%, 지방비 60%, 자담 20%)를 지원해왔으나, 어업인의 참여 부족으로 처리량이 1만6000t에 그쳤다.

발생량의 31% 수준만 제대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버려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굴 폐각 분쇄기 설치사업비 6억원을 지원해 폐화석 비료와 가축사료 등 자원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김 종자 배양용으로 사용되는 폐각 4000여t의 국산화를 위한 생산·가공시설 건립에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흑산공항 건설을 상반기 재심 신청

국립공원위 민간위원 임기만료 8명 중 4명 교체 계기

울릉공항이 오는 2025년 개항에 맞춰 지난 3일 공사 발주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흑산공항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일부 위원에 최근 교체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2020년 개항 예정이었던 흑산공항은 지난 2016년부터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놓고 4년간 논란이 계속되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민간위원 변경을 계기로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잠정 중단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재개를 요청해 흑산공항을 울릉공항 개항 시점에 맞춰 개항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흑산공항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가운데 4명이 지난 1일자로 교체됐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 당원직 10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 8명의 임기가 지난 4월 6일자로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임기만료로 교체 대상이었던 민간위원 8명 중 4명만 교체되고, 4명은 유임됨에 따라 기존 민간위원 15명 중 11명이 그대로 활동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립공원의 흑산공항 건설 반대 입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흑산공항은 울릉공항과 함께 국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흑산공항에 대한 행정 절차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는 2018년 10월 2일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중단한 바 있다.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이 2018년 2월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안전인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재보완 서류를 같은 해 10월 1일 다시 보완해 내겠다는 공문을 제출함에 따라 정회 중인 제124차 위원회가 자동 폐회된 것이다. 흑산

공항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지난 2016년 11월 처음 개최돼 보류됐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중에도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의를 거쳐 '재보완 서류'를 추가 보완해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이 바뀌고 울릉공항의 개항 시기가 2025년으로 확정된 만큼 흑산공항 역시 새로운 분위기에서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립공원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 다시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사업비 1833억원을 들여 흑산도 68만3000㎡ 부지에 1.2km 길이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울릉공항 건설사업비(6633억원)가 최종 확보됨에 따라 3일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5월 개항을 목표로 2020년 상반기 착공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지은면 현리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적합 분할가능 평당65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원도·광주간 고속도 영암 톨게이트서 금정면 방향 700m 4028㎡ 다용도 4억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남구 방림동 주거지역 1420㎡ 다세대·원룸 적합 16억4천
- 곡성 임면 매실밭 13000㎡자연인생생활적합 신고는 2억5천 매도 1억2천
-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
- 완암동 아파트 지하 205㎡ 은행8천 교환가능 1억8천
- 강진 성연면 월출산 밑 4차선접 4630㎡ 대형주자식 인근 노인병원·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함평 염산면 바다 접 땅 1280㎡ 건물 183㎡ 식당·노래방 3억5천
- 충장로 4기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25억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뒤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동구 충장로 5가 최고상업지 나대지 1707㎡ 건설적합 84억
- 광산구 송학동 땅 43278㎡ 사찰있음. 남광동·북지시설 적합 15억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11607㎡ 요양시설·전원주택 적합 4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요양시설 등 적합 -일부는 광주 원룸부지와 교환 가능 4억 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접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펜션 대지 2180㎡ 펜션3동 372㎡ 8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7억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사옥 등 적합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신창동 근린상가

-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 감정/시세-11억
-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에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소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NAVER 유한바이오펙셀생활건강 | 판매

010-3598-7080